

광주 교육 투자비율 광역 지자체 중 '꼴찌'

지난해 예산 0.01% 투자... 기초단체도 투자 인색
전남도 0.28%... 전국 평균 0.44%에는 못미쳐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예산액 대비 교육 분야 투자가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지자체들의 예산대비 보조 비율은 0.01%, 겨우 5억여원에 불과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꼴찌였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

반회계 최종예산) 254조2495억원 가운데 0.44%인 1조1151억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했다.

교육투자비는 교육시설개선·급식시설 확충·교육정보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투자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예산(48조9073억원)의 1.07%(5235억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0.74%

(2706억원), 대전이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교육분야에 투자한 금액만 놓고 보면 경기·서울 다음으로 경북(562억원)이 많았다.

반대로 광주의 경우 지난해 예산(5조 8737억원) 가운데 0.01%인 겨우 5억 5000만원만 투자해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0.06%(2억2000만원) 서구(7900만원)와 광산구(1억 3000만원)가 0.02%, 동구(2300만원)와 북구(5300만원)가 0.01%였다.

전남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예산(17조 9038억원) 중 교육투자 예산은 0.28% (497억원)에 그쳤다.

도 단위 중에는 많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 0.44%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군 지자체 중에는 순천시(0.93% (93억8000만원), 나주시(0.78% (56억5000만원), 여수시(0.76% (80억1000만원), 광양시(0.75% (47억6000만원)로 투자비율이 높았다.

교육투자 보조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고흥군으로 0.06% (3억9000만원), 장흥군은 0.10% (3억8000만원), 신안군 0.12% (7억4000만원) 순이다.

시군구 보조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교육열이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의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진도 관매도서 관박쥐 서식지 발견

최장 30년 생존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진도 관매도 동굴에서 관박쥐 서식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매도의 관박쥐 서식지는 사람의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해안 지역의 길이 약 20~25m 동굴로, 관박쥐 30여마리가 동굴 천장과 벽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관박쥐는 주로 동굴에서 생활하며 해가 진 뒤 30분 후나 해 뜨기 직전에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한다.

수명이 최대 30년으로 우리나라 박쥐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종으로 알려졌다. 몸길이는 6.3~8.2cm까지 성장하며 코의 주름이 발달하고 코 모양이 말굽 편자를 닮았다.

몸 윗면의 털빛은 어두운 회색빛이 감도는 갈색, 아랫면은 회색빛을 띤 흰색이며 날개와 귀는 반투명하다.



최대 수백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곤충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매도는 섬 전체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고 경관이 우수해 전국에 18곳뿐인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돼 있다.

송도진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관박쥐가 관매도에서 발견된 것은 안정적인 먹이사슬을 유지하며 섬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섬 생태계가 잘 유지되도록 지역 주민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과 만들기 재밌어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11일 오후 담양군 창평면의 한 한과공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한과를 직접 만들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전남 64개소 선정

전국 최다... 국비 35억 확보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19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전남 지역의 경영체 64개소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50개소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43%를 차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교육컨설팅 40개소, 시설장비 지원 21개소, 사업다각화 3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76억 원 가운데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는 지방비와 자비부담 41억 원을 보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벼를 50ha 이상 들녘단위로 규모화·조직화한 공동 경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등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법인과 농협으로, 정국지원 RPC 또는 연간 2000톤 이상 가공 능력이 있는 도정공장과 계약 재배·출하 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전남지역 들녘경영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81개 지역기업 참여 620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지역본부 주관하는 '2018 광주광역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1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이미용, 화장품, 생활소비재, 의료기기, 식품,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제조하는 지역기업 81개사가 참여해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8개국 45개사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

로 마케팅에 나서 3건 62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중화권과 아세안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노하우가 총결집된 초대형 행사로 해외 유통바이어와 일대 일 수출상담은 물론 광주시 공동브랜드 7개사, 지역 우수 수출기업 제품 19개사 등 26개의 쇼케이스가 눈길을 끌었다.

또 수출 지원기관 종합 컨설팅을 위해

무역현장 자원위원 및 관세사를 배치, 수출관련 원스톱 상담데이블을 운영하여 참가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가 중간 매개자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나아가 각 도시와 국가 간 새로운 상생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청 광주시, 17일 일일상담실 운영

광주시는 의사라고도 고통받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시청 2층 복지건강국민민원상담실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연다. 지난 3월부터 격월로 운영중인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은 수도권에 자리한 중재원을 찾아가야 하는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서울의 절반 수준

지난해 1인당 평균 109만원

전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지난해 지급된 복지 포인트가 서울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지급 복지포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09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았다.

같은 기간 서울시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지급 포인트는 204만원으로 약 2배의 격차를 보였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복지 포인트는 125만원이다.

17개 광역단체 복지 포인트 평균값을 높은 순서대로 하면 광주시는 11번째, 전남도는 15번째에 속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도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수산물 온라인 판매 무료 컨설팅



쇼핑몰 상품 등록, 주문 발주, 고객 관리 등 통합 대행

- 지마켓, 옥션, 수협쇼핑, 우체국 등 판매 대행
- 대행으로 인한 추가 판매수수료 부담 해소 (여가 직접 일점 시와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 부과)
- 상품문의, 배송문의, 고객 클레임 처리 전담 고객센터 운영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무료 제작

- 인터넷 판매에 필요한 상품 이미지 무료 제작
- 제작된 이미지는 저작권 제한 없이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수산식품 패키지 디자인소스 무료

- 국내산 수산물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어업인들에게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제공
- 피쉬디자인(www.fishdesign.co.kr) 홈페이지에서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다운로드
- 피쉬디자인 소스 활용하여 포장재 제작시 일부 제작비 지원

한국수산회에서는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수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문의

한국수산회 소비촉진팀 T. 02-589-0633